

Bonjour, Paris!

2023 ‘뮤직뱅크 인 파리’ 제작기

최호경

KBS 중계기술국 시스템감독

KBS의 대표 음악방송 뮤직뱅크는 한류, K-POP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한국 음악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자청하며 전 세계 142국에 생방송되고 있다. 그리고 월드투어라는 이벤트로 매년 한두 국가씩 해외 현지에서 K-POP 팬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갖는다. 특히 이번에는 내년 파리올림픽을 축하하며 무려 11년 만에 다시 프랑스를 찾아 파리의 K-POP 팬들과 함께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공연의 기술 코디를 맡아 참여한 이야기를 지면을 빌어 풀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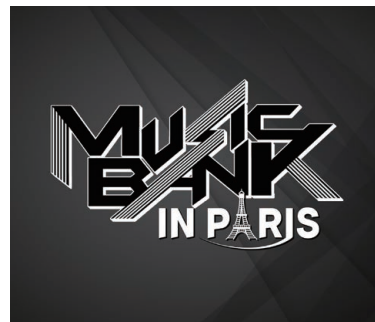


그림 1. ‘뮤직뱅크 인 파리’ 로고

모두가 꿈꾸는
낭만의 도시,
그러나...

파리! 생각만 해도 낭만이 넘치는,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고, 가면 또 가고 싶다는 그 파리! 하지만 파리는 연금개혁 이슈로 인해 연일 큰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답사로 간 날에도, 공연을 위해 입국한 날에도 파업 및 시위가 벌어져 시내 일부 지역은 교통이 통제되고 일부 과격한 시민들은 폭죽을 쏘아대는 등 살짝 불안한 상태였다. 현지 가이드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아 쓰레기가 넘쳐나는 적도 있었고 파리의 자랑 지하철도 배차간격이 들쭉날쭉해 불편한 면도 있을 거라고 했다. 실제로 우리 스태프 중 한 명이 시위대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평온했고 시민들도 나름의 질서를 지키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 파리에서 우리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올 ‘유료’ 공연을 준비해야 했다.



그림 2. 우리가 도착한 날도 시위가 한창이었다. photo by 김성민 오디오감독

소통, 소통, 또 소통...

‘뮤직뱅크 인 파리’ 공연의 준비는 이미 2022년 여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주로 연출 쪽에서 현지 프로모터와의 계약 및 대관 등이 이루어졌고, 기술 코디를 맡은 필자는 2022년 겨울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되었다.

처음 시작한 것은 ‘테크 라이더’를 보내는 것이었다. 계약서의 기술적인 부칙을 뜻하는 테크 라이더는 대체로 기술 파트에서 직접 작성하게 되고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카메라의 대수, 녹화의 규모, 그리고 조명 및 음향 장비의 스펙은 물론, 그에 따른 현지 스태프의 수도 명기한다. 이를 보내면 상대방에서 본인들의 능력에 따른 장비 목록, 그리고 스태프의 수를 적은 ‘카운터 라이더’를 보내오는데 이때부터 진짜 소통이 시작된다. 이때 어떤 것은 허용해 주고 어떤 것은 양보하고 어떤 것은 밀어붙여 얻어낼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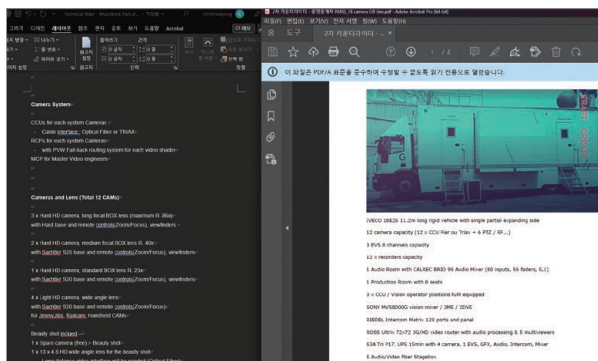


그림 3. 테크 라이더와 카운터 라이더, 초기버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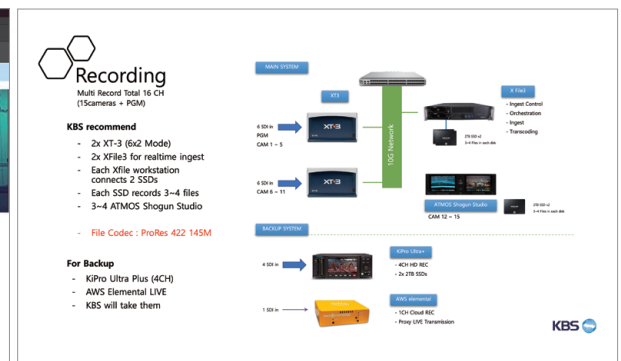


그림 4.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그림을 그려서라도 이해시켜야 한다

처음에는 카메라 대수와 녹화 규모 등과 같이 일반적인 내용에서 시작해서 점차 구체적인 사항으로 항목을 넓히고 또 경우의 수를 좁혀 가는데, 각각의 자세한 기종, 렌즈의 배율 및 종류, 녹화 코덱, 멀티트랙 녹화기로 사용하기로 한 LSM의 세부 세팅, 오퍼레이팅 인력의 규모, 설치할 모니터의 개수는 물론 그쪽에 보내는 전송방법, 마이크 개수, 인이어 개수, 무선마이크 주파수, 현장PA콘솔 및 방송콘솔, 플레이콘솔 기종 정리, 조명 및 LED 기종, 현장 LED Wall 구현 방식 등등... 각종 기술적인 건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과 컨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그들이 가능한 것들에 대한 조율 등을 모두 담당해야 했다.

비디오 출신인 내가 잘 모르는 음향과 조명에 관련된 것은 각각 음향감독과 조명감독님 및 음향업체, 조명업체가 대응했지만 결국 내가 취합해야 했기에 웬만한 국제대회 코드만큼이나 많은 소통이 필요했다. 더구나 대략의 국제적인 표준이 존재하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 대회와는 달리, 이건 온전히 우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이해하는 바가 없는 경우도 많아 이를 이해시키고 우리의 요구를 따라주도록 설득해야 했는데, 이때 직간접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및 메시지가 수백 개에 달했다.



그림 5. 주고받은 메일들, 끊임없이 CC가 쌓인다

파리에 온 체코 중계차의 폴란드 감독님들

특히 이번 파리 공연에서는 현지 스태프를 대거 이용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분명 공연은 파리에서 하는데 현지 프로모터가 보내온 카운터 라이더에는 유럽 전역에서 장비와 인력을 렌탈해 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중계차는 체코에서, 인력은 폴란드에서, LED는 독일에서, 스파이더캠과 PA장비들은 프랑스, 인터캠은 이탈리아, 거기에 한국 스태프까지... 그야말로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제 방송이 될 판이었다. 이는 인건비가 비싼 프랑스 현지의 사정이 제일 컸겠지만, 하나의 대륙에 웅기중기 여러 나라가 모여 있는 유럽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일 수도 있어 이채로웠다. 한편으론 능력과 실력만 인정받으면 어디서건 일할 수 있는 유럽의 분위기가 부럽기도 했다.



그림 6. 우리와 함께한 O₂ TV 중계차, 무려 체코에서부터 왔다



그림 7. 폴란드, 체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 그야말로 다국적군

이 때문에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방송 녹화를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다. 카메라맨이 폴란드에서 오기 때문에 스위치맨도 폴란드 사람이어야 효율적이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 커팅 PD도 폴란드인이어야 유기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이 문제는 답사 때부터 이슈가 되었고, 우리 측에서 이를 어렵게 OK 하자, 이후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결국 공연 전반적인 구성 및 연출은 우리 측에서 하고 카메라, 중계차 등 직접적 운영은 거의 100% 현지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지 진행을 하게 되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준 마법의 도구?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알리자, 사내에서는 이를 불안히 여기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그쪽의 아티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K-POP 가수들을 모르는 것이 당연할 텐데 현지 스태프가 우리 가수들 공연을 어찌 알고 구도를 잡아 카메라 워킹을 하고 이를 적절하게 커팅을 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느냐는 말이다. 특히나 K-POP 공연은 거의 예술의 경지로 칼 군무를 하고 여기저기서 보컬과 안무가 튀어나오는 데다 한 팀당 인원은 좀 많은가.

이를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큐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이었다. 큐파일럿은 컴퓨터를 이용한 큐시트 프로그램으로 종이로 된 큐시트나 가사지 없이도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멀티트랙 막대를 보면서 자동 혹은 수동으로 컷을 넘길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이다. 컷 포인트는 타임코드로 잡을 수도 있고 아예 음원 파일이나 동영상 클립을 레퍼런스로 사용할 수도

있어 굉장히 정확한 컷이 가능하다. 또한 특정 시점에 메모도 할 수 있어 중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기도 하는 등 기능이 매우 많았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꽤 오래전에 개발되어 유럽에서는 많이들 사용한다고 해 국내에도 얼마 전 소개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국내에선 시장 안착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8. 큐파일럿 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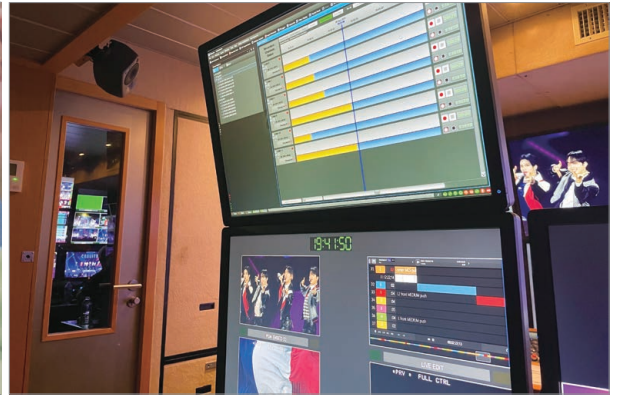


그림 9. 중계차 내부, 리턴으로 보내주는 큐파일럿이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를 희망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대체로 가사지를 이용해 각 곡의 컷 포인트를 잡는데, 한글로 된 우리의 큐시트를 어찌 알아보겠는가. 우리는 우려 반 걱정 반으로 일단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자고 했고, 그들은 우리가 미리 넘겨준 가수들의 연습 영상과 음원, 그리고 우리 카메라 감독의 ‘문서’ 큐시트를 바탕으로 작성한 ‘큐파일럿’을 만들어 보여주었다. 현대 이것이 생각보다 괜찮게 결과가 나와 현지에서 조금 더 수정을 한 뒤 이것을 이용하기로 했다. 단, 컷은 자동으로 아닌 수동으로 넘기며 우리 PD가 함께 중계차에 탑승해 애매한 부분은 보완해 주는 조건으로.

완전 자동으로 컷을 할 것이 아니면 이게 무슨 소용이었겠냐 만은 이를 이용해 얻는 순기능은 사실 따로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연출자와 스위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화면을 리턴으로 카메라맨에 전달한 것이다. 카메라 리턴을 통해 언제 자신에게 컷이 넘어올지 시각적으로 보게 되니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멀티트랙 막대뿐 아니라 이동 동선 등도 함께 그림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 스코어리더의 부가 설명 없이도 단번에 이해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명, 이틀 만에 무대를 세워라!

생방송이 아닌 녹화로 진행되고, 카메라 전 소스를 ISO로 담아 따로 후반 편집을 할 수 있는 마당에 라이브 컷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현지 프로모터는 이 월드투어를 무려 3만 3천 석의 관중이 입장하는 어마무시한 공연장을 대관했고, 거기다 모두 유료 관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공연을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우리의 공연장은 파리 외곽에 있는 ‘라데팡스 아레나(La Défense Arena)’라는 곳이었다. 이곳은 평소에는 럭비 경기가 열리는 인조 잔디의 실내 경기장이지만 건립 당시부터 다목적으로 설계해 바닥 레이어를 바꾸면 메인인 럭비나 축구는 물론, 마루를 깔아 농구 같은 실내 구기종목도 가능했고 심지어 흙을 깔아 몬스터 트럭 랠리와 묘기 바이크 경기까지 진행했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 경기장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무려 수영장으로도 운영될 계획이라고 하니 다목적 경기장의 신기원을 세운 곳이라 하겠다.

당연히 대규모 콘서트도 가능했는데, 경기장이지만 상부 천정에 승강 와이어가 있어 트러스를 달면 바턴처럼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전 세팅된 훌륭한 조명도 이미 있었으며 곳곳에 방송을 위한 커넥터와 케이블 루트가 미리 마련된, 참으로 부러운 시설이었다. 유럽 대부분의 경기장이 그렇듯, 중계차 파킹을 위한 별도의 장소도 잘 마련돼 있었고 전기 설비도 충분하고 UPS에 준하도록 제공돼 따로 발전차를 준비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림 10. 라데팡스 아레나 홈페이지



그림 11. 흙을 깔아 묘기바이크 대회인 Supercross도 열렸다
/ 출처 : 라데팡스 아레나 홈페이지



그림 12. 뮤직뱅크 무대로 바뀐 럭비경기장

하지만 그 때문에 대관료가 매우 비싸 우리에게 주어진 사전 세팅 시간은 사실 이들 전부였다. (그나마 럭비 홈팀이 일찍 리그에서 탈락해 장비 반입을 위한 반나절이 더 주어졌어 이들이 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답사 때부터 정말 분초 단위로 설치에 대한 타임 스케줄을 잡아야 했다.



그림 13. LED 및 조명 리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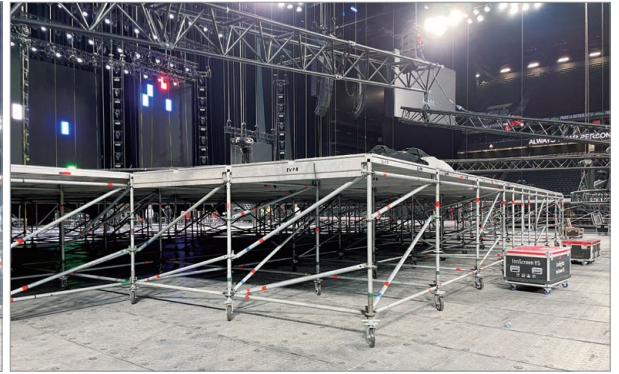


그림 14. 무대를 부분품으로 만들어 합체한다. 바퀴 달린 레이저로 밀어서!

여기서도 그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조명, 스피커 어레이, LED 패널 등 기구물은 모두 트러스에 미리 설치한 뒤 상부 천장에 와이어로 끌어 올려 고정하고, 무대는 바퀴 달린 트러스를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조립해 부분품을 만든 뒤 단번에 밀어 넣어 합체해 완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순차적으로 바닥부터 만들고 트러스를 올리고 기구물 설치를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한 팀의 일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팀이 기다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팀이 거의 동시에 일을 할 수 있어 시간을 엄청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조금 무리수가 따랐지만, 그들은 상당한 프로 정신으로 이를 마무리해 냈고, 공연 전날 22시쯤부터는 오디오, 조명 및 LED 핸드오버를 시작으로 아침에는 카메라 설치까지 완료해 공연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3만 3천 명의 떼창, 그리고 합성

공연 당일, 밤새 세팅한 현지 스태프들에게 약간의 휴식 시간을 주고 드디어 드라이 리허설부터 시작이 되었다. 약간의 미진한 부분이 여기저기서 발견됐지만, 대부분은 잘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공연에 집중할 시간이 되었다. 당일 까지 가장 속을 썩었던 부분은 마이크 혼신 부분과 LED 세팅 쪽이었는데, 마이크의 경우에는 비교적 금방 잡아낼 수 있었지만 LED 세팅이 살짝 문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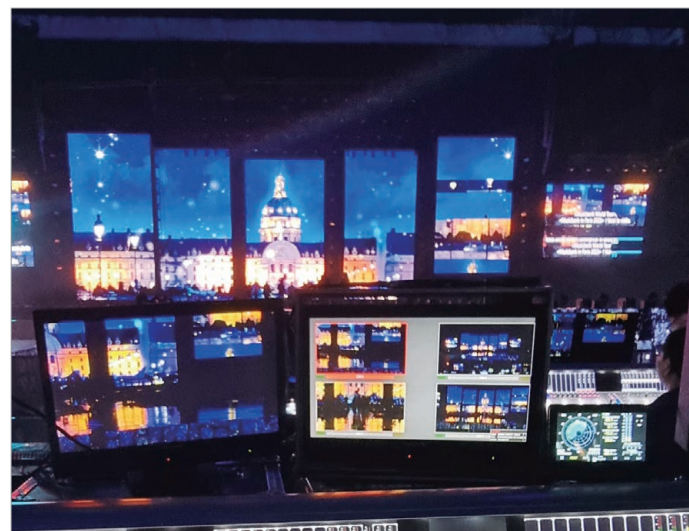


그림 15. LED 세팅을 하다 에러 발생으로 한 장이 깨진 채 진행 중

우리는 중계차 등을 모두 우리 방식인 59.94i로 세팅하였지만, LED쪽에서 패널 리프레시 레이트를 50i로 세팅했던 것. 세팅하며 눈으로 볼 땐 미처 몰랐지만 카메라를 대고 나니 LED의 깜빡임이 카메라에 그대로 전해져 별다른 세트 없이 LED로만 꾸며진 무대가 너무 어색하게 비쳤다. 간단하게 세팅만 바꾸면 되는 문제였지만 리허설과 동시에 진행되니 일은 늦어졌고, 그 와중에 시스템이 에러를 일으키면서 LED 어레이 좌표가 무너져 화면이 다 깨져버리는 아찔한 상황까지 가기도 했다. 이 문제는 최종리허설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아 마음이 타들어 갔지만 현지 스태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해결이 되었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린 또 하나의 장면.

그리고 오디오 쪽에서는 건전지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통상 우리 쪽은 방송의 안정성을 위해 마이크와 인이어의 배터리를 방송 전 모두 새것으로 교체하는데, 현지 스태프들이 가져온 배터리를 모두 소진했다며 이를 거부한 것. 이 와중에 오디오 팀끼리 가벼운 마찰이 있었고 “너희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지구가 아프다”는 말까지 들었다는, 웃을 수만은 없는 에피소드를 나중에 들려주었다. 요즘같이 환경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사실 한 번쯤 생각해볼 만 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긴 하다.



그림 16. 공연 직전. 엄청난 관객들이 꽂 들어차 있다

그때쯤 밖에서는 이미 관중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유럽 각지에서 몰려온 K-POP 팬들이 이미 몇 시간 전부터 공연장 앞 광장에 몰려들어 각자 응원하는 팀 구호를 외치며 이미 축제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는 뮤직뱅크 최초로 ‘리허설 VIP’ 석을 판매했는데, 말 그대로 리허설 때부터 들어와 관람할 수 있는 스페셜 티켓이었다. 우리에게 생소한 이런 방식은 유로뮤직 페스티벌 등에서는 일반적인 티켓으로, 아티스트와 좀 더 잘 소통하는 방법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들어간 본 공연. MC 박보검의 등장만으로도 이미 공연장은 터져나갔다. 우리의 아티스트들도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그들에게 화답했고 또 감동했다. 세 시간이 넘게 이어진 공연은 패션의 도시 파리에서의 공연답게 패션쇼와 유사한 마무리로 끝난 공연은 가수와 관객이 모두 쉽사리 무대를 떠나지 못하며 한참이나 여운을 남겼다.

모두의 피땀의 결과물, 잘 부탁해!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아직 우리에게는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바로 믹스다운과 편집이다. 현지에서는 공연장에 맞도록 PA를 보내주지만,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기에 트랙별로 따로 받아 다시 믹싱한다. 편집도 마찬가지. 중계차의 카메라 소스 외에도 VCR물, 별도 VJ 카메라, 드론 등을 추가로 섞고 제대로 커팅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편집한다. 이를 위해 모든 카메라 소스를 각각 따로 녹화하고 잘 가져와야 한다. 녹화물에 훼손이 생기면 현지에 간 스태프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몇 년 전 칠레 뮤직뱅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당시 HDD를 갖고 오던 연출부 스태프가 이를 수하물에 넣어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여버린 것이다.

당시 PD는 어쩔 줄 몰라 이를 들고 용산 복구업체로 달려갔지만 안 된다는 답만 얻어왔고, 다행히 당시 통역을 맡았던 친구 중 한 명이 한국에 귀국하는 일이 있어 그 길에 다시 복사를 해올 수 있었다.

그래서 Ki Pro Ultra와 같은 가벼운 장비를 따로 가져가 항상 백업 레코딩을 꼭 해오는 편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방식도 사용해 보았다. 바로 AWS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이를 위해 현지에 업로드 100Mbps 이상급의 인터넷을 준비하도록 요청했고, 사내 클라우드 부서의 협조를 얻어 AWS의 Elemental Link라는 소형 인코더를 준비해 갔다. 이것으로 파리 리전에 실시간 업로드를 하고, AWS S3 서비스를 이용해 클라우드 백업을 한 뒤 서울 리전으로 복사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Media Connect 서비스를 이용, 서울 리전을 통해 실시간으로 PGM을 본사에 보내 현장 분위기를 취재한 기자 송고물의 VCR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었다.



그림 17. 백업 녹화 및 AWS 클라우드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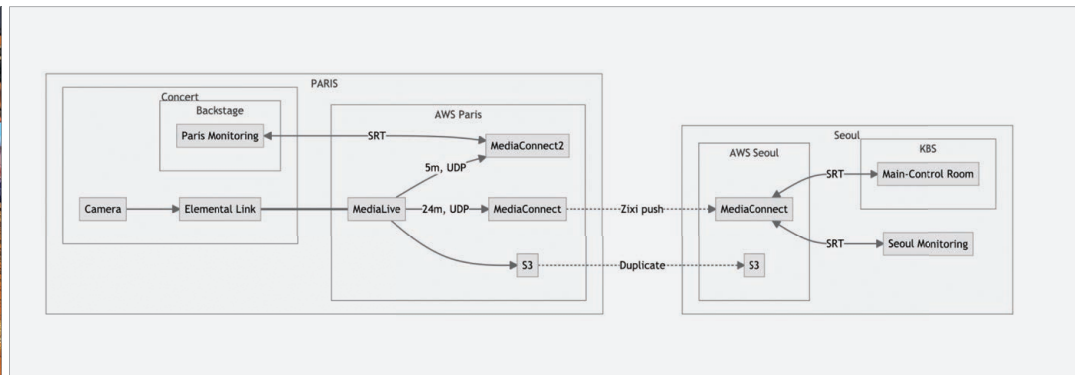


그림 18. AWS 구성

마무리하며

몇 번의 해외공연 진행으로 해외에도 K-POP 팬이 많긴 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공연만큼은 정말 K-POP의 위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다. 3만 3천 석은 일찍이 이미 매진되어 추가 좌석을 만들어 내야 했고, 꼭 찬 객석보다 더 꽉 채운 그들의 함성과 떼창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하지만 K-POP은 아직 발전 중이다. 이 위대한 발전의 흐름에 약간이나마 동참할 수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느낀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며 성공적인 공연을 이끌어낸 국내 및 현지 스태프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이어지는 해외 출장에도 흔쾌히 남편과 아빠를 내어준 우리 가족에게도 역시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이 글을 마친다.

아듀, 파리. 내년엔 올림픽으로 만나요! 🇫🇷



그림 19. 필자가 찍은 에펠탑 야경